

HONG KONG
C H I N A
I N D I A
KOREA

2017
S E S S E D

7

ABC CERTIFIED
KOREA AUDIT BUREAU OF
CIRCULATIONS

국내 유일의 발행부수 공인 멤버십 잡지



The new Audi A6

말하는 스트라이프



다니엘 뷔랑은 현대미술에서 '스트라이프' 하면 떠오르는 작가다. 1965년부터 사용한 줄무늬는 그의 시그너처 스타일이 됐다. 색색의 줄무늬는 원기둥, 거대한 깃발, 현수막,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평면의 한계를 벗어나 공간에 직접 개입하며 무언의 메시지를 던

진다. 그는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는 8.7cm 간격의 선 조합으로 2002년 파리 퐁피두 센터, 2005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등에서 회고전을 개최했으며, 베니스 비엔날레와 카셀 도큐멘타 등의 국제 전시에 10차례 이상 참가했다. 1986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프랑스관 전시로 황금사자상도 받았다. 그의 한국 첫 갤러리 개인전이 313아트프로젝트에서 8월 8일까지 열린다. '인-사이투(in-situ)' 개념에 기반을 둔 설치 작품 21점을 선보이는데, 모두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한 신작이다. '인-사이투'는 그의 작품과 작품을 전시한 장소, 그곳에서 발생하는 상황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의 작품이 변신시킨 강남 한복판의 풍경을 놓치지 말자. 문의 3446-3137

김수자의 세계



올해 호암상 예술 부문 수상자인 김수자 작가가 지난 5월 29일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뉴욕과 서울에 기반을 두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해온 그녀는 이날 오랫동안 켜켜이 쌓아온 자신의 예술 세계를 청중에게 소개했다. 1980년대부터 천과 바늘을

매개로 한국의 전통적 천 조각인 이불보를 사용해 '보따리'와 '바늘 여인', '호흡', '지수화풍' 등의 시리즈로 대중과 소통해온 그녀는 그간 평면과 입체 설치, 비디오아트,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시간과 공간, 삶과 예술의 의미와 관계를 탐구하는 대표적 개념미술 작가로 성장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주요 비엔날레와 국제 전시 무대에서 주목받았으며, 지난해엔 유럽 미술 전문지 <아트팩트넷> 선정 '세계 300인의 작가'에 이름을 올렸다. 서구의 관점에서 바라본 '동양적' 가치에 실험적 태도로 접근해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을 선보이는 그녀의 내일을 응원한다.



'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시장 올림픽'

시장을 아시나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시장'이라는 도시로 변신했다. 문학작품에 상상의 공간으로 등장하는 이곳을 실재하는 곳으로 만든 주인공은 시징맨. 시징맨은 2006년 한·중·일 세 작가 김홍석, 천사오승, 오자와 쓰요시가 의기투합해 결성한 그룹이다. 전시는 '시징을 아시나요?', '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시징이군요', '시징을 사랑해요' 등 4개 챕터로 구성했다. 관람객은 세 작가가 시징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영상 작품을 감상하고 본격적으로 전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시징 출입국 사무소를 통과해야 한다. 환한 미소를 짓거나 노래를 부르고 매력적인 춤을 춰야 입장이 가능하다. 다른 도시처럼 올림픽을 치르고, 연극이나 인형극 공연이 열리며,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대통령도 존재한다. 세 중년 남성 작가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우면서 동시에 꽤 진지하다. 김장언 학예사의 설명처럼, '예술과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고 싶은 독자라면 '시장'을 방문해보자. 전시는 8월 2일까지. 문의 3701-9500

세상의 질서를 묻는다



사진 Keith Park

가브리엘 쿠리와 국제갤러리 전시 전경

동시대 사회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친 두 작가의 개인전이 국제갤러리에서 동시에 열린다. 한국 작가 함경아는 <Phantom Footsteps>에서 대규모 신작 자수 회화 시리즈를 선보인다. "눈에 직접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작가의 말처럼 작품에는 숨은 의미와 이야기가 자수처럼 촘촘하다. 집 앞에 떨어진 대북 선전물을 보고 제작을 결심한 자수 회화는 작가가 조합한 콜라주 이미지를 북한으로 전달해 그곳의 공예가가 손자수로 제작하는 험난한 과정을 거친다. 그녀의 작품이 현란한 시각적 즐거움과 수공예의 놀라움을 선사한다면, 멕시코 출신 작가 가브리엘 쿠리(Gabriel Kuri)의 작품은 오브제 사용의 절제와 긴장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쿠리는 강철, 돌 같은 전통적 조각 재료 외에 돈, 발견된 오브제, 각종 소비재를 사용해 조각과 설치미술의 형태와 기능을 실험한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들의 작품에는 세상을 보는 작가의 유머가 곳곳에 녹아 있다. 두 전시 모두 7월 5일까지. 문의 735-8449